

임실군 농식품 바우처 이벤트

바우처 사용 독려·취약계층 식생활 지원·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 위해 추진

임실군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임실군 여름맞이 농식품 바우처 이벤트'를 진행하고, 바우처 이용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중 임신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바우처가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6만5천원, △3인가구 8만3천원, △4인가구 10만원 등이다.

이번 이벤트는 바우처 사용을 독려해 지원금이 실제 식생활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월 한 달간 지급된 바우처 총 잔액을 전액 사용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군은 참여가구 가운데 30가구를

무작위 추첨해 4만원 상당의 국내산 농산물 꾸러미를 보낸 장바구니에 담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가구에는 9월 3일 개별통보하고, 경품은 9월 11일까지 배송할 예정이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국산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흰 우유, 신선알류, 훈제란, 육류, 잡곡, 두부류, 임산물 등 국내산 신선농산물이다.

사용처는 관내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 33개소를 비롯해 관외 2,277개소와 농협몰 등 온라인매장 9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7월말 기준 지원대상 가구의 92%에 해당하는 117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바우처 미사용 잔액을 줄이고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적극 발굴해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읍면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구매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해 지역농업과 먹거리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원대상 가구가 바우처를 적극 활용할수록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확대되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와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앞으로도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원에서 소비로, 소비에서 지역농업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51-0857),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먹거리정책팀(063-640-2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이벤트가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들이 지원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넓혀 지역농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갈것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스마트 복지서비스 제공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범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경로당을 여가와 건강, 생활정보, 안전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 복지공간으로 전환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82개소와 스마트 스튜디오 2개소에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7월 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에는 양방향 화상시스템과 대형 디스플레이, 카메라·마이크·스피커를 비롯해 음급출출기와 화재감지 센서 등이 설치된다. 이를 활용해 건강체조와 치매예방, 스마트폰 활용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와 보건 의료원에 스마트 스튜디오 2개소를 구축해 실시간 양방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문화·복지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양방향 시범강의와 경로당 참여 프로그램 등 실증 운영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건강과 여가, 안전, 생활정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배움과 소통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함께 챙기는 생활밀착형 복지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신령면, ‘폭염 피해 예방’ 경로당 순회 방문

임실군 신령면(면장 홍충의)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속에서 어르신들의 불편한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긴급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낮시간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폭염의 장기화에 따라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 시간 연장을 권고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안전 시설 점검도 병행했다.

한편, 신령면은 폭염기간 동안 이장단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8월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임실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읍·면별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열려

공직 수행 최우선 가치 ‘청렴’

남원시(시장 양충모)가 공직사회 내 청렴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지난 8월 ‘열린 시정의 날’을 맞아 분청 1층 대강당에서 시 소속 모든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1번지 남원’ 조성을 위한 강력한 행보를 나선 것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관행적인 부패요소를 원천 차단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임숙하면서 도의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신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눈시청 직원을 대표해 감사담 담관과 행정지원과장이 단상에 올라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 간부공무원이 직접 낭독함에 따라 더



남원시가 공직사회 내 청렴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욱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의 다짐을 보여주었다.

이날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패요소를 원천 차단하여 청렴한 남원시 공직사회 구현에 솔선수범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시에도 추구하지 않음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금품·향응·청탁 등 일체의 특혜 및 편의 제공·수수 금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감찰과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

하는 행위 엄단 △공직자의 본분과 책임을 완수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청렴 생활화 실천 등이 담겨있다.

남원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정 전반에 청렴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 없는 청렴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0회 남원시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10회 남원시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가족사진 공모전은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가족의 사랑과 아이 키우는 기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이와의 행복한 일상상은 물론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모습, 가족이 서로를 돌보고 웃음을 나누는 순간 등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응모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원본 사진 파일과 함께 작품 제목, 촬영일시 및 장소, 간략한 사진 설명과 접수자 정보를 작성하여 8월 12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전자우편(nwtab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되고, 가정당 최대 2점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팀(063-620-79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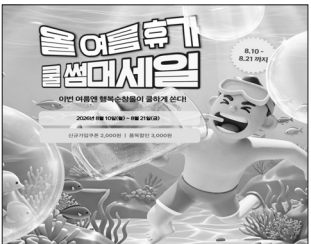
/남원=김기두 기자

하계휴가철 맞아 ‘행복순창물 할인행사’ 실시

순창군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룸인 행복순창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이달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순창의 우수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행복순창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선착순 1,000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0포인트가 제공된다. 또한 행복순창물 입점업체 전 품목을 대상으로



건당 3,000원 할인 혜택을 선착순 4,000건까지 지원해 소비자들이 순창 농특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렸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